

2023년 산업보건



국가경쟁력의 기본,
노동력 보호



산업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가려면

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4개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의 안전보건은 이 핵심과제와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긴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찬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동성이 저하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대한 다른 시각의 필요성,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강화라는 방향은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주로 사고성 사망재해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보건 혁신 방안’을 2023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하고 있다. 산업보건 혁신 방안의 필요성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제도는 업무상 질병 보상 이슈가 주도했던 1980년대에 강화돼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 노동자의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과 보건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업보건 정책은 지난

5대 이슈



산업보건 이행의 핏줄,
기초산업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안전보건 커버리지의 관건,
취약계층



100년을 내다보는
안전보건 인력 양성

40여 년간 정책 대상의 확대, 규제 항목의 확장 같은 변화는 있었으나 갈수록 변화하는 산업과 노동 형태를 따라잡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 플랫폼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담기에는 경직된 제도적 틀의 문제가 있다. 화학물질 중독 관리 중심의 정책 감각으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자 건강 보호 설계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함께 닥쳐오는 국가 노동력의 보호와 육성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으로 수립한 정책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3년 산업보건 5대 이슈를 ‘국가경쟁력의 기본, 노동력 보호’, ‘산업보건,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가려면’, ‘산업보건 이행의 핏줄, 기초산업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안전보건 커버리지의 관건, 취약계층’, ‘100년을 내다보는 안전보건 인력 양성’으로 선정했다. 🍷